

급등하는 증시따라 마통 대출 증가 남은 한도 55조 '잠재적 가계부채'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41조 전체 한도의 43%... 아직 57% 남아 증시 과열시 단기간 부채전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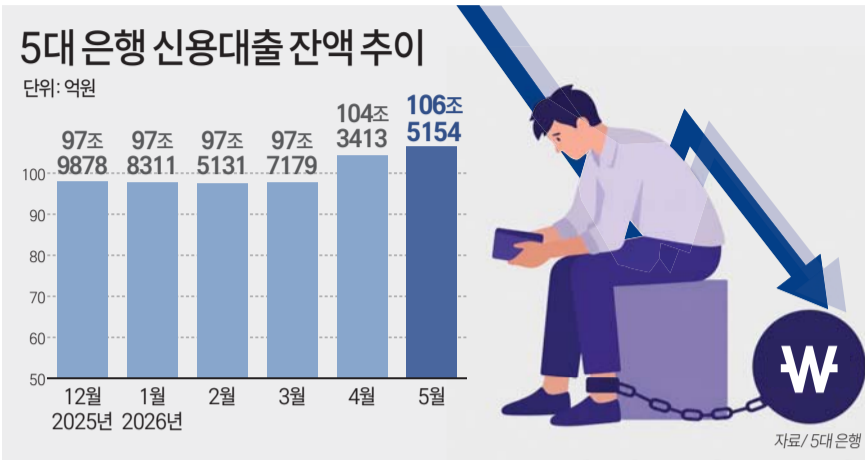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미사용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55조원. 한번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 증시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41조20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도(96조3387억원)의 42.8% 수준이다. 2023년 1분기 37.9%였던 한도 사용률은 지난해 41.1%로 40%를 넘어선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증시가 급등한 영향이 컸다.

코스피는 지난 2일 8801.49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5대은행의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5154억원으로, 4월 말(104조



3413억원) 대비 2조6496억원 늘었다. 코스피가 3200선을 처음 돌파했던 2021년 4월(+6조8401억원)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문제는 현재 사용 중인 대출보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한도가 더 많다는 점이다. 마이너스통장의 전체 한도는 96조3387억원으로 실제 사용액 41조2041억원을 제외한 미사용 한도는 55조1346억원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 번 약정을 맺으면 별도의 대출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증시 과열이 이어질 경우 이 한도가 단기간에 실제 가계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에게 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반영한다. 다만 가계부채 통계에는 실제 이용 잔

액만 집계된다. 55조원 규모의 미사용 한도가 증시 투자자금 등으로 빠르게 인출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한도를 단순한 대출 여력이 아닌 잠재 리스크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이미 승인된 신용공여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용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증시 상승기에 투자 자금 수요가 몰릴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어 잔액뿐 아니라 한도 사용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KB금융, 차기회장 톱리스트 12명 확정

현 양종희 회장 연임 가능성도 관심 내달 3일 톱리스트 6명 확정 예정 10월 회추위 등 거쳐 11월 중 선임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현 양종희 회장의 임기가 아직 다섯 달이 남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와 검증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내·외부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의 톱리스트가 확정된 가운데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 2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현 회장의 임기는 11월 20일까지며, 최종 회장 후보자는 오는 9월 11일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에서는 회장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결의하고, 톱리스트 20명을 내·외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승계절차 개시일로 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의 기간을 3개월로 늘려 후보자를 면밀히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다음달 3일 1차 톱리스트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부 후보자에게도

불리함이 없도록 2개월 가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8월 27일에는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톱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한다. 9월 11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하게 된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의 주주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심사는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다. 앞서 윤종규 회장은 3연임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KB금융을 이끈 바 있다.

실적은 합격점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 4조6319억원에서 2024년 5조782억원으로 '5조 클럽'에 입성했다. 2025년 순이익은 5조 8430억원으로 성장세는 더 가팔라졌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9000억원에 달하며 연간 '6조 클럽'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최종 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하게 되면 10월 2일 회추위와 이사회 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빚투 열풍' 비은행 신용대출 787% 급증

지난달 온라인 P2P대출잔액 2.2조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사상 최대 신용거래용자 잔액 37조 역대 최대

시중은행에 이어 비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가 9000선 턱밑까지 치솟는 등 주식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46곳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지난달 대출 잔액은 2조187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약 1조1940억원)와 비교하면 83.3%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약 3700억원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약 415억원) 대비 787% 급증했다. 1년 사이 대출 잔액이 9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지난 2021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1조3975억원으로, 전년(1조1674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역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코스피 랠리에 따른 '빚투' 수요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주식 시장 상승세에 더해 곧 코스피가 1만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 열풍은 이미 시중 은행권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달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넘어선 것. 실제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106조9909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말보다 2조6496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25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신

용거래용자 잔고가 37조6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각종 지표가 빚투 확산세를 가리키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 중에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 있는 총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금리 인상 변수다.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빚투족들의 금리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일 고공행진 하던 코스피까지 불확실한 대외 변수로 조정될 경우, 급증했던 빚투족들의 충격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용대출 잔액 증가를 모두 빚투 수요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계자는 "대출 잔액 숫자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다"며 "최근 온투업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저축은행이 기관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부영그룹, 병역명문가 전국 레저시설 할인

병무청과 우대혜택 제공 업무협약

부영그룹은 병무청과 '병역명문가 대상 레저시설 이용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과 홍소영 병무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병역이 자랑

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직계비속 3세대(代)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명문가는 전국 6곳의 부영그룹 레저시설(무주더유산리조트·태백 오투리조트·제주부영호텔&리조트·제주부영CC·제주더클래식CC·순천부영CC)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계약 유지율 이미지.

보험사, 신계약 늘었지만 5년 유지율 '뚝'

금감원, 3년 단기 유지율 상승 5년 유지율 45.7%로 0.6%p ↓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기 유지율은 여전히 절반을 밑돌고 있다. 단기 유지율은 개선됐지만 5년 유지율이 하락하면서, 보험사의 미래이익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계약 확대보다 계약 유지력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87.9%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유지율은 73.8%로 4.6%p, 3년 유지율은 58.5%로 4.3%p 올랐다. 반면 5년 유지율은 45.7%로 전년보다 0.6%p 하락했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과거 체결된 계약 가운데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보험료 비율이다.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계약을 많이 확보하

더라도 계약이 오래 남지 않으면 판매비 회수와 미래이익 인식에 부담이 생긴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CSM 확대에 집중해왔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 계약에서 장래에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나 CSM은 계약 유지와 해지율 가정에 민감하다. 해지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장래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연구원도 올해 보험산업 전망에서 계약자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해지율 상승에 따라 평균 11%의 CSM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계약 CSM을 쌓는 것 못지않게 기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셈이다. 낮은 유지율은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수익성 양쪽의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에 계약에서 해약한 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재가입 때는 나이와 건강상태 변화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같은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김주희 기자 gh471@